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어 교육 위상 변화와 글로벌 중국어 시대의 전망

김석영 (한국교원대)

1. 들어가며
2. 한국의 중국어 교육 전통
3. 해방 후의 중국어 교육
4. 글로벌 시대의 중국어 교육 전망
5. 나오며

초록

근대 이전의 한중 관계사에서 중국어는 링구아 프랑카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고 있었으며, 교육에서도 지식과 정보 획득을 위한 기본 도구로서 기능하였다. 근대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중국어의 지위와 중국어 교육의 위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고, 그 결과 해방 이후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중국어는 제2외국어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날로 제고되어 유초등 교육에서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중국어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글로벌 중국어의 현황 또한 영어 못지않게 다양하다. 이와 같은 안팎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중국(PRC)의 공용어라는 인식의 틀 안에 가두지 않으면서 높아진 국내에서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중국어 교육 연구와 실천이 요구된다.

키워드 : 중국어 교육, 제2외국어, 국가 교육과정, 어린이 중국어 교육, 글로벌 중국어

1. 들어가며

이 글은 한반도에서 지난 두 천년기 동안 중국어와 중국어교육이 차지했던 위상 및 근대 격변기와 해방 이후의 위상 변화와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제고에 이르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른바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중국어 관점의 교육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의 중국어 교육 전통을 문언문과 경서 중심의 교육, 구어 접촉과 역관 교육으로 나누어 일별할 것이다. 이어서 해방 후의 냉전 체제 속에서 교육과정 공표와 함께 발생한 중국어 교육의 위상 변화, 한중수교 이후 중국어 교육의 회복과 확대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교육계의 논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www.kci.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중국어 교육 전통

2.1 한자의 전래와 경서 중심 학교 교육

한국어와 중국어의 접촉은 아주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그 시작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서사 기호인 한자가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조차도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만큼 그보다 오래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어 접촉의 시점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출토된 明刀錢이나 銅鐘 등의 금속 기물에 한자 명문이 새겨져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기록에 유가 경전이나 중국의 역사서를 가르치고 배운 사실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자의 전래는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한자와 문언문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확인된다. 고구려의 太學과 扃堂에서는 五經과 ≪史記≫, ≪漢書≫ 등을 가르쳤으며, 백제에는 五經博士가 있었고 일본에 ≪論語≫와 ≪千字文≫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학교 교육의 발전이 늦은 편이었으나 화랑도는 ≪詩經≫, ≪書經≫, ≪禮記≫ 등의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 통일신라에서는 國學을 설치하여 ≪論語≫, ≪孝經≫, ≪禮記≫ 등의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으며, 讀書三品科를 두어 중국의 경전에 얼마나 능통한지를 평가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640년(선덕여왕 9년)부터 당나라의 국자감에 도당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학교에는 관학인 國子監, 鄕校, 學堂, 사학인 十二徒와 書堂이 있었다. 또 고려 光宗 때부터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과거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과거의 문관 등용시험은 製述과 明經의 兩大業이었으며,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 또한 문학적 능력과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 중심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관학으로는 成均館과 鄕校, 사학으로는 書院, 書堂 등이 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학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유교 경전이었으며, 성리학을 관학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자백가 등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전통 시기는 기본적으로 중국 중심의 질서를 기저에 두고 있었으며, 중국어는 아시아의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ca)였다. 특히 문언문은 지식과 정보를 담지하는 매개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문언문으로 이루어진 경서에 대한 지식과 문언문을 사용한 문필 능력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2 구어 접촉과 역관 교육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구어를 통한 언어접촉은 한자라는 문자를 매개로 한 접촉보다도 훨씬 오래되었을 것이다. 특히 인구 유입이나 왕래와 같은 일반적인 교류보다도 외국어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사건은 군사적 충돌이다. 현대의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모색의 시작에는 2차 대전 시기 군사적 필요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는 정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면서 전문인력 양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두 문화권 사이에서 일어난 역사상 첫 번째의 대규모의 군사 접촉은 漢武帝의 고조선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침공일 것이다. 그 이후로 고구려와 漢 사이의 침공과 방어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군사 접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적 필요에 따라 중국어 전문인력이 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당연합군의 활동 과정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언어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고려 忠烈王 2년(1276)에 通文館을 설치하면서부터이다. 통문관은 훗날 司譯院으로 개명되었으며, 여러 외국어 교육을 관장하였다. 고려에서는 이와 별도로 漢文都監(훗날 漢語都監으로 개칭)을 설치하여 중국어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건국 초기에 다시 설치된 사역원이 역관의 양성을 담당하였는데, 언어별 인력 분포를 볼 때 중국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老乞大≫, ≪朴通事≫를 비롯한 다수의 역학서가 출판・사용되었다.

3. 해방 후의 중국어 교육

3.1 국가 교육과정과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해방 후에는 냉전체제의 형성과 함께 한중관계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단선적 관계'(김한규 1999: 988)로 전개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중국어 교육은 크게 위축되고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외국어 교육의 중심이 중국어에서 영어로 이동한 것은 일대 전환이라 할 만하며, 이때부터 중국어는 영어를 제외한 여타 외국어와 함께 이른바 '제2외국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영어와 구별하여 중국어와 여타 외국어에 제2외국어라는 별도의 외국어 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가 교육과정이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국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방 후 중국어 교육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수요목기에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와 함께 고급 중학교 선택과목으로 편성된 이래로 1954년에 공표된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교육과정과 제2차 교육과정은 모두 언어의 네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고대백화와 문언문까지 교수 내용으로 하고 있고, 병행 이수 지식 내용에 현대 중국의 문화 외에 명물・고사・고전문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초의 교육과정이다보니 다소 이상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내용' 부분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기능 구분이 등장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은 '내용' 부분이 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로 구분되었다. 특히 제4차 교육과정은 평가에 관한 지침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최초로 부록에 어휘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어휘표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용 어휘의 선정 기준을 짐작하기 어렵다.

제6차 교육과정은 '내용' 부분에 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 외에 의사소통 기능이 추가되고, '언어 기능' 부분이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으로 양분되었으며, '의사소통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과 예시문’이 처음 제시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6차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는 한중수교 이후의 첫 교육과정으로 ‘한어병음’ 표기를 공식화하고 한자 표기에도 간화자를 사용하였으며, 기본어휘표의 일부 어휘 항목이 타이완 어휘에서 베이징 어휘로 변경되었다는 데 있다. 이 시점 이후로 한국의 중국어 교육 표준이 중국(PRC)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에 ‘문화’가 추가되었다. 중국 문화 이해와 국제화 역량 함양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목표로 제시되었으나 내용 부분에 문화가 추가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목표’ 부분에 ‘태도’가 별도로 제시되고, ‘내용’이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으로 나뉘어 제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2외국어과가 외국어 영역에서 생활교양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중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는 반대로 학교 교육에서는 중국어 교과의 가치가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성취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최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과 기능을 결합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교수학습방법·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성취기준과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이상과 같은 변화의 흐름을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해보면, (1) 의사소통능력의 강조, (2) 언어 형식 요소에서 기능 요소 중심으로의 변화와 네 가지 기능 중심의 교수·학습·평가 체제, (3) 문화적 내용의 강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 언어교육의 흐름이 구조와 체계의 숙달에 중점을 두던 데에서 맥락 이해와 사용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해 왔던 사실이나 문화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세부 내용의 변화에 있어서 옳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상의 국가 교육과정은 외국어 교육에서 중국어의 지위를 제2외국어로 제한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었다. 이는 해방 전의 약 2천 년 동안 한국에서 중국어 교육이 가졌던 지위를 일거에 뒤집는 것이었고, 중국어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새로운 세계의 공통어인 영어였다. 이런 변화는 냉전체제에서 중국(PRC)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한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으로 편입되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로 중국어의 사회적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한국에서 중국이 갖는 의미 또한 점차 중요해져 왔다. 구체적인 성격과 양상은 달라졌지만 중요도 자체만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해방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 중국이 가졌던 의미와 위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어 교육도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3.2 한중수교 이후의 유초등 중국어 교육 확대

한국 사회에서 중국과 중국어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한 흐름과 가장 크게 유리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도권 중등교육이다. 중국어의 사회적 위상 변화는 중등교육 내에서 별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중국어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수가 늘어나는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교육과정에 의해 중국어과에 할당되는 수업시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생수의 증가는 중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변화일 뿐이다. 이러한 괴리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생활교양 영역에 편제된 선택과목 중의 하나라는 위상,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의 낮은 중요도가 사회적 수요의 영향을 차단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을 제외한 여타 교육 영역은 한중수교 이후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유초등, 대학, 성인 교육 영역 공히 양적·질적 팽창의 추이가 뚜렷한데, 이는 중국이 갖는 의미가 개화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귀하는 추세와 함께 한국 내에서의 중국어 위상 또한 제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사례와 지표를 통해 그 양상의 일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초등 중국어 교육, 즉 어린이 중국어 교육의 성장은 어린이용 중국어 교재의 증가를 통해서 그 가파른 속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변지원(2016: 84)에 의하면 '출판 관계자의 귀띔에 따르면 지금 어린이 중국어 교육과 관련 시장은 그 성장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어린이용 중국어 교육 도서는 '일본어의 네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추이에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교육 업체 회원 학부모들의 의견이므로 전체 학부모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응답자의 84.5%가 10년 뒤의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 중국어를 꼽고 92.5%가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겠다고 답했다는 한 사교육 업체의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아시아경제, 2016.05.19)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일대에서는 중국어 유치원이 하나 둘 개원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영어 유치원들 가운데는 오전에는 중국어, 오후에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이른바 '반반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이코노미조선, 2015.09.23) 초등학교로 눈을 돌려보면 더 높은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 외국어 학습계획에서 영어(93.2%) 다음으로 중국어(43.7%)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가 있는가 하면(머니투데이, 2016.07.27), 중국어 신문을 발행하거나 자체 중국어 캠프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도 있다.(학부모뉴스24, 2016.07.29 ; 헤드라인제주, 2016.08.04)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는 더 나아가 중국의 한 언론사와 협약을 맺고 중국어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전교생이 매일 아침에 30분간 중국어 수업을 하게 되었다.(연합뉴스, 2016.04.28.)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체험캠프를 열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혹은 방과후학교 수업의 중국어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정규과정 운영이 자유롭지 않은 국공립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다.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이듬해인 2007년 초등 방과후학교의 제2외국어 프로그램은 모두 1,714개였는데, 2016년에는 3,212개로 늘어났다.[1] 2007년 당시의 제2외국어 프로그램 가운데 중국어는 1,456개로 약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7년 이후로는 통계자료에 언어가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85%라는 비율을 2014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해도 2,700개 이상의 중국어 프로그램이

1) 제2외국어 프로그램 수는 2012년에 3,813개까지 늘어났다가 부침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며, 여타 외국어 프로그램의 증가율이 중국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중국어 프로그램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공립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 초등학교는 정규과정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정규과정으로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규진(2012)의 조사에서는 전국의 74개 사립 초등학교 가운데 34개 학교가 정규과정으로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민영(2016)의 조사에 의하면 3년이 지난 2015년에는 전국 75개 사립 초등학교 중 56%에 달하는 42개 학교가 중국어 정규 수업을 개설하고 있었다. 증가의 추이를 보면 불과 3년 만에 23.5%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의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김현철 외(2017)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소재 596개 초등학교 가운데 23%에 달하는 136개 학교가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민영(2016)에 의하면 부산 지역은 306개 초등학교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61개 학교가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중국어를 필수 교양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건국대, 용인대, 한양대, 호남대(10개 학과) 등은 모든 입학생이 중국어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한양대는 공인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세대는 제2외국어 중에서 반드시 6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외대는 졸업 언어 2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 다음으로 선택률이 높은 언어가 중국어이다.(뉴스토마토, 2015.04.28 ; 이코노미조선, 2015.09.23)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영어 매출 하락과 중국어 매출 증가가 대비를 보인다. 교보문고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토익을 포함한 수험영어의 연도별 성장률이 2013년 -3.0%, 2014년 -8.5%, 2015년 -14.2%로 하락세가 심화되는 반면 '중국어일반' 서적 분야는 2015년 판매량이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3대 성인어학원으로 꼽히는 YBM, 해커스, 파고다 가운데 토익 강좌에 집중한 YBM과 해커스의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어 회화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파고다만이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토익 학원의 추락, 중국어 학원의 급성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2016.05.17)

중국어 교육의 성장은 대표적인 중국어 공인시험인 신HSK의 응시자수 추이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내의 신HSK 응시자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解妮妮 외(2012)인데, 2010년에는 53,445명, 2011년에는 65,767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이후로는 전세계 응시자 총수만이 공개되고 있어 대략적인 추산만 가능한데, 이강재 외(2014)의 추산에 의하면 2013년에는 8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精品学习网新闻站 등의 보도나 관계자들의 비공식 증언에 의하면 2013년 8.5만, 2014년 약10만, 2015년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글로벌 시대의 중국어 교육 전망

필자가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유초등 중국어 교육의 변화이다. 위에서 다루지 않은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유초등 사교육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유초등 중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 교육과정에서 중국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초등 영어교육에 관한 논의에서도 개인적·국가적 낭비의 최소화, 도시·농어촌 간의 영어 학력 격차 최소화와 같은 주장이 주요 찬성 논지의 하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완기 2015: 23) 유초등 중국어 교육의 혜택은 상당 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학력 격차를 야기할 것이며, 이른바 '차이니스 디바이드(Chinese devide)'는 지역과 계층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개인적·국가적 낭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이미 중학교 생활중국어 이수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중국어를 선택하게 되면 입문 단계의 기초 교육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일선 교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몇 년 후부터는 유초등 단계에서 중국어 교육을 받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생활중국어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중등 교육과정도 더 이상 사회의 중국어 수요와 유리된 채로 운영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등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유초등 중국어 교육의 확대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굳이 유초등 시기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중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이 중등학교 진학 후에 중국어 교육을 중단함으로써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추세대로 유초등 교육이 계속 확대된다면 중국어 학습자 혹은 중국어 학습 경험자의 비율은 그대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전이될 것이다.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중국어 교육을 경험한 채로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대체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일어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국어 능력의 보편화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어가 영어와 같은 세계어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국어를 '중국의 언어'가 아니라 '중국어권의 언어'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어 교육 표준 또한 베이징 중심의 일원론적 관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글로벌 중국어(全球華語)가 사용되는 중국어권을 아우르는 다원론적 관점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5. 나오며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중국어 교육 변천사를 일별하고, 그 과정에서 근대를 전후하여 일어난 중국어 위상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의 회복 흐름을 확인하였다. 한중수교 이후로 점차적인 회복세에 있던 중국어 교육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의한 제약을 받는 중등교육의 경우에만 사회적 변화의 추이로부터 다소 유리되어 있을 뿐 유초등 중국어 수요의 급격한 증가, 대학교육의 변화, 사교육 시장의 변동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어 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중국어 능력이 보편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중국어 표준에 대해서도 다원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위상이나 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중국어 교육계 내의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오량, 김정렬(2010), 한국영어교육사, 서울: 한국문화사.
김규진(2012), 한국에서의 어린이 중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김명신(2013), 한국교육사, 서울: 동문사.
김민영(2016), 어린이 중국어교육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김석영(2013), 표준중국어계 지역변이형과 중국어 교육의 표준 문제 — 중국어 교육의 사회언어학적 접근, 중국언어연구(46): 301-334.
김한규(1999), 한중관계사 Ⅰ·Ⅱ, 서울: 아르케.
김현철, 이경진, 김주희, 이유진(2017), 2015년 서울시 중국어 교육기관 현황조사, 서울: 학고방.
변지원(2016), 두 개의 혀, 서울: 에피스테메.
손민정 외(2011), 한・중 간 인재 육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강재, 이미경, 송홍령, 김석영(2014), (신)HSK에 대한 한국의 중국어 교육자・학습자 인식 조사연구, 중국어 교육과 연구(19): 215-241.
이광숙(2014), 개화기의 외국어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완기(2015), 초등영어 교육론, 서울: 제이와이북스.
정광(2014), 조선시대의 외국어교육, 서울: 김영사.
解妮妮 `黄贺臣 `曲玉彬 `张晋军 `李亚男(2012), 新汉语水平考试在韩国实施情况报告, 中国考试(04): 48-51.
张西平(编)(2009), 世界汉语教育史, 北京: 商务印书馆.

www.krm.or.kr